

# 龜巖 李楨의 中庸學

이 세 동\*

## 차례

1. 머리말
2. 龜巖의 배움과 『中庸』
3. 「中庸詠十四首」분석과 그 특징
4. 龜巖 中庸學의 의의
5. 맺음말

### 【국문초록】

龜巖 李楨(1512~1571)은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관료이다. 당대의 명사들인 魚得江, 宋麟壽와 李滉의 문하에서 배우고 曹植과 도의로 사귀며 학문을 성취하였는데, 특히 송인수와 이황의 영향을 깊이 받아 성리학자가 되었다. 그는 『中庸』에 대한 조예가 깊어 종래 퇴계의 中庸學을 계승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남아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아 전모를 살피기가 쉽지 않다. 다만 「中庸詠十四首」가 문집에 실려 있어 그의 중용학을 부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바, 본고는 이 작품을 분석하여 그 특징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규명하였다.

첫째, 「중용영」은 시제의 선택과 배열이 序·本·結의 치밀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성은 주요 개념의 해설을 위주로 하면서 본체론 보다는工夫를 중시한 수양론에 경도되어 있다. 특히 「중용영」의 치밀한 구성은 전무후무한 것이며, 이 시가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학문체계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작시임을 나타내고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있다. 그러므로 「중용영」은 여타 자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구암 중용학의 수준을 가늠하게 한다.

둘째, 「중용영」은 주로 주자의 『中庸章句』와 『中庸大全』 세주의 주자 언설을 인용·변용하여 작성하였다. 이는 구암이 철저하게 주자의 이론에 근거하여 『중용』을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용장구』보다는 『중용대전』의 세주를 응용한 시가 많은데 이는 그의 『중용』 공부의 정밀하였음을 반영한다.

셋째, 「중용영」 14수 가운데 9수가 『중용』 1장과 관련된 개념과 내용인데, 이는 구암의 『중용』관이 반영된 결과인 동시에 1장을 『중용』의 ‘체요’라고 간주한 주자의 견해를 존중한 것이기도 하다.

넷째, 그가 공부와 실천을 중시한 수양론에 입각하여 『중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퇴계와 동일한 경향이며, 이는 구암의 중용학이 퇴계의 계승이라는 선유들의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섯째, 구암의 중용학은 조선의 성리학 발전 초기 단계에서 본체론 중심의 『중용』 이해가 수양론 중심의 『중용』이해로 건너가는 교량의 자리에 위치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 주제어

구암 이정, 퇴계 이항, 『중용』, 중용학, 「中庸詠十四首」, 성리학, 수양론

## 1. 머리말

龜巖 李楨(1512~1571)은 자가 剛而이며 경남 사천 출신의 인물이다. 그는 魚得江(灌圃: 1470~1550)과 宋麟壽(圭菴: 1499~1547) 및 李滉(退溪: 1501~1570)의 문하를 드나들고 曹植(南冥: 1501~1572)을 도의로 사귀어 따르며 학문을 이룬 학자였으며,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중종·인종·명종·선조의 4조에 걸쳐 내외관직을 두루 역임한 관료였다. 혼후한 기상과 순수한 德容으로 사우간에 명망이 높았고, 5읍의 수령을 역임하며 선정

을 펼쳐 循吏의 명성을 얻었다. 특히 여말에 수입된 성리학이 아직 기반을 다지지 못하고 있던 시기에 성리학 관련 도서를 비롯한 多種의 도서를 간행하여 조선 중기 지성사를 풍요롭게 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그의 사후 남인세력의 중심인물이었던 許穆(眉叟 : 1595~1682)이 묘갈명과 신도비명을 짓고 문집을 간행하는 등 현창사업을 주도하여 구암의 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고, 경술국치에 단식 순국한 李晩燾(響山 : 1842~1910)는 퇴계문하에서의 구암의 성취를 孔門+皙에 견주어 자리매김하였다.<sup>1)</sup>

구암을 평가하는 전인들은 『중용』을 자주 이야기하였다. 『龜巖集』의 서문을 쓴 趙綱(龍洲 : 1586~1669)은 구암의 학문을 개괄하여, “퇴계 이선생의 문하에서 학문에 전념하여, 『중용』의 전함을 친히 받았다.”<sup>2)</sup>고 하였고, 허목은 발문에서 “퇴계의 제자 가운데 구암의 학문은 『중용』의 전함을 깊이 얻었다.”<sup>3)</sup>고 하여 『중용』이 구암 학문의 본령임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학자로서의 구암을 이야기하면서 『중용』을 비껴갈 수는 없다.

구암의 중용학을 살펴볼 수 있는 1차 자료는 원집·속집·별집 각 1책으로 구성된 『구암집』 3책이다. 『구암집』은 구암 사후 70년 뒤인 1641년에 원집이, 다시 100여 년 뒤인 1749에 속집이 간행되었으며, 다시 150여 년 뒤인 1902년에 원집과 속집의 중간과 함께 별집이 간행되었다. 260여 년 동안 3차례에 걸쳐 미수를 비롯한 후학들이 정성을 다하여 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일의 정도는 심각하다. 예컨대, 퇴계가 구암에게 보낸 서간은 『퇴계집』 원집의 54편과 속집의 32편 등 총 86편이 남아 있으나 『구암집』 원집에는 퇴계에게 보낸 서간이 한 편도 없고 별집에 겨우 3편이 실려 있다. 그 가운데 問目 2편은 『퇴계집』에서 발췌한 것이고 나머지 1편이 구암이 퇴

1) 『龜巖集·別集·序』(『韓國文集叢刊』 33, 505쪽) : “惟我先君退陶夫子門下, 有如龜巖李先生, 其德行文學, 優入四科之列者.”

2) 『龜巖集·序』(『문집총간』 33, 412쪽) : “屈首李先生之門, 親受中庸之傳.”

3) 『龜巖集·跋』(『문집총간』 33, 457쪽) : “陶山弟子, 龜巖之學, 深得中庸之傳.”

계에게 보낸 유일한 서간이다. 『구암속집』을 교정하고 발문을 쓴 사천현감 魚有成의 “이론 바가 이처럼 우뚝하고, 문사 또한 이처럼 웅혼한데 세간에 전하는 저술이 이같이 영쇄하니 난리와 화재를 겪으며 잃어버린 것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sup>4)</sup>라는 탄식이 저간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구암 증용학 검토의 1차 자료인 문집의 상황이 이러하고 보니 퇴계의 『中庸』傳人이라는 명성에 어울리는 글을 『구암집』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없다고 하는 편이 사실에 가깝다. 다행스럽게도 「中庸詠十四首」의 시가 남아 있어 구암의 증용학을 엿볼 수는 있으나 전체 면모를 살피기에는 부족하다. 이 점이 아마 선행 연구자들이 구암의 증용학을 직접 다루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sup>5)</sup> 본고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본고는 연구의 한계를 안고 출발하는 셈이다.

본고는 「증용영십사수」를 중심에 두고, 『구암집』의 관련 자료들과 구암 이외에 『증용』을 노래한 諸家들의 시편을 참고하여 구암의 증용학을 재구성해 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암이 스승들에게서 배움을 이루어가던 과정을 『증용』이라는 초점에 맞추어 추적해 보기도 할 것이며, 구암 증용학의 특징과 의의도 밝혀 볼 것이다.

## 2. 龜巖의 배움과 『中庸』

『구암집』의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구암의 학문 성취에 영향을 끼친 저명

4) 『龜巖集·續集·跋』(『문집총간』 33, 504쪽) : “樹立既如是卓然, 文詞又如是雄渾, 而著述之行於世者, 若是零瑣, 則其散失殘缺於兵燹之餘者, 又不知其幾許篇.”

5) 기발표된 구암 관련 논문 10여 편 가운데 구암의 학문세계를 언급한 논문들이 대체로 『中庸』을 언급하고 있으나 간접 자료를 통한 소개에 그치고 있고, 정우락 교수의 「『中庸』이 龜巖 李楨의 文學에 미친 影響」(『東方漢文學』 25, 2003)이 구암과 『中庸』의 관계를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한 인물로 대략 관포·구암·퇴계·남명의 4인을 들 수 있다. 이들 가운데 구암이 가장 먼저 접한 인물은 아마 관포 어득강인 듯하다. 관포는 진주 출신의 조선 중기 명사이다. 소과와 대과를 거쳐 관직이 대사간에 이르렀다. 만년에 고성의 혼돈산 아래에 은거하여 渾(混)沌山人이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구암은 『龜巖歌』의 서문에서, “年少할 때부터 관포선생의 문하에 출입하였는데 인도하여 이끌어주신 바가 많았다.”라고 하였다. ‘年少’라는 표현을 두고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쯤이 될 것이다. 이 시기부터 구암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던 관포의 문하를 드나들면서 글을 배웠던 것이다. 구암은 관직에 나선 뒤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포를 찾아갔다. 서문을 계속 보자. “나는 휴가를 얻어 고향에 올 때면 반드시 선생을 찾아뵙고 며칠을 머무르다 돌아오곤 하였는데, 복귀할 때까지 가서 뵙고 질의 토론하지 않은 달이 없었다.” 구암의 관포에 대한 정성이 각별하였던 것이다. 관포 또한 구암에게 각별하였던 듯하다. “선생께서도 연세가 여든에 가까우셨으나 여러 차례 방문하셨으며, 경치 좋은 곳과 그윽한 사찰들에 가실 때마다 모시고 가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 글의 끝에 언급하였다.”<sup>6)</sup> 구암은 관포보다 42세가 적었다. 30대 중반의 제자가 명리에 초연한 70대 후반의 스승을 모시고 산수간을 노니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이처럼 각별한 사이였으므로 구암은 선영이 계신 곳이자 스스로 호를 삼은 곳이기도 한 구암을 노래하면서 마지막 단락에 관포를 특별히 언급한 것이다.

況與君子,           하물며 군자와 더불어  
并世而同立.       시대를 같이하여 함께 삶에라!

6) 『龜巖集·續集』권1, 「龜巖歌·序」(『문집총간』 33, 486쪽): “自年少時, 出入於灌圃先生之門, 先生多有所誘掖. 余受由來覲, 必往省先生, 留數日而還, 及去間, 無月不往拜討質. 先生年近八十, 亦命駕來訪者累矣. 溪山好處, 山寺幽靜, 無不陪遊. 故篇未及之.”

樂哉龜巖兮,	즐겁도다 구암이여,
洵訏且樂.	참으로 크고도 즐겁도다!
混沌在東兮,	혼돈산이 동쪽에 있음이여,
高高仰止.	높이 높이 우르러도다!
灌溪一派兮,	灌溪 한 줄기여,
源源而不渴.	끊임없이 흘러 마르지 않으리!

이처럼 사모한 관포였으나 구암이 그에게 무엇을 배웠는지는 알 수 없다. 관포는 金安國(慕齋 : 1478~1543) · 李彦迪(晦齋 : 1491~1553) · 周世鵬(慎齋 : 1495~1554) · 李滉 등의 석학들과 교류하고 있으며<sup>7)</sup>, 특히 퇴계는 관포가 곤양군수로 있을 동안 찾아가기도 하고, 시집의 발문을 직접 쓰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관포는 아마 높은 수준의 학식을 갖추고 있었을 터이지만 유학사와 관련하여 언급할 자료는 전혀 없다. 그는 오히려 학문보다는 기지와 해학으로, 그리고 당대 정상의 시인 湖陰 鄭士龍(1491~1570)과 긴밀히 교류하고 『灌圃詩集』을 남긴 시인으로 더 유명했던 인물이다. 또한 사료들이 그의 淸貧과 恬退를 언급<sup>8)</sup>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명리에 초연했던 인물인 바, 구암은 아마 관포의 학식과 함께 이러한 인품을 사모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그의 문하에 드나들었을 것이다.

구암이 학문의 방향을 가늠하게 된 것은 아마 규암 송인수를 만나고 부터 일 것이다. 규암은 당시 권간 金安老를 論劾하여 중종 30년(1535)에 사천에 유배되었으며, 후일 다시 李崐와 尹元衡을 논핵하여 49세에 사사된 인물이다. 구암은 24세 때인 1535년에 사천에 유배온 규암을 찾아가 배움을 청하

7) 『灌圃詩集』(『문집총간』속1) 참조.

8) 『朝鮮王朝實錄』 중종 24년 6월 辛卯條, 중종 34년 10월 丙戌條, 명종 4년 10월 戊戌條 참조. 정사 이외에도 『國朝人物志』1 · 『海東雜錄』 등이 별도항목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으며, 『大東奇聞』에도 그의 일화가 실려 있다.

였다.<sup>9)</sup> 이때 구암이 무엇을 배웠는지는 자세하지 않지만 鄭斗가 구암의 行狀에서 “이로부터 爲己之學을 얻어 듣게 되었다.”<sup>10)</sup>라고 하고 있는 바, 아마 이때 성리학을 처음 접하였을 것이다. 아직 성리학의 기반이 공고하지 않았던 당시에 구암은 성리학 보급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성균관 大司成이 되었을 때는 과거공부를 주로 하였던 당시의 학풍과 달리 義理로써 齋生들을 가르쳐 동방에 주자가 환생하였다는 비웃음을 사기도 하였고,<sup>11)</sup> 전라감사가 되어서는 『小學』을 읽도록 후생들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며,<sup>12)</sup> 배움을 청하는 후학들에게 당시로서는 비교적 생경한 『心經』과 『近思錄』을 가르쳤다.<sup>13)</sup>

이러한 인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구암은 자연스레 『중용』에 주목하였을 것이다. 혹 이전에 『중용』을 읽었더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중용』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중용』은 주자가 성리학의 체계를 완성하고 난 뒤 새롭게 정비한 교과서인 『사서』 가운데 성리학 이론에 가장 근접해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구암은 구암을 통해 성리학에 입문하였고 퇴계에게 나아가 본격적인 가르침을 받아 학자로서 대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구암의 학문은 구암에서 시작하여 퇴계에서 마쳤다는 지적이 있게 된 것이다.<sup>14)</sup>

9) 구암이 구암의 문하에 들어간 해에 대하여 사친문화원에서 간행한 『龜巖年譜』를 비롯해 선행연구들이 1534년이라고 하고 있으나 『圭菴年譜』(『圭菴集』권4)에 따르면 1535년이다.

10) 『龜巖集』권2, 「附錄·行狀」(『문집총간』 33, 438쪽): “時圭庵宋先生麟壽謫四川, 先生歸師事之, 自是得聞爲己之學.”

11) 『圭菴集』권3, 「附錄·諸家記述·政院日記」(『문집총간』 24, 43쪽): “中宗大王三十七年壬寅正月, 大司諫沈光彦上疏末段. 史臣曰: ‘大司成宋麟壽, 有儒行好古之人也. 愍其教化之不明, 士習之不端, 通讀之際, 開發義理之訓, 誘掖諸生. 則有生員宋拘李純孝之輩, 退議于齋曰, 義理之訓, 豈可行於今時, 行義理之訓, 而何時爲科舉乎? 相與議其師長曰, 今見朱子再生於吾東方也, 遂大笑.’”

12) 『圭菴集』권3, 「附錄·諸家記述·政院日記」(『문집총간』 24, 45쪽): “奇大升進啓曰, …… 又曰: ‘麟壽一生欽慕己卯之人, 癸卯甲辰年間, 爲全羅監司, 勸勉小學, 引接後生. 其時讀小學, 皆宋麟壽之功也.’”

13) 『圭菴集』권4, 「附錄·年譜·43세條」(『문집총간』 24, 75쪽): “淸州士人趙綱, 執摯就學. 授以心經·近思錄等書.”

규암이 을사사화의 여파로 정미사화(1547)에 사사된 뒤 구암은 몹시 가슴 아파하며 「圭庵宋先生贊」을 짓는다.<sup>15)</sup>

稟質和粹,	타고난 자질 온화하고 순수하시니,
精金美玉,	순정한 금이며 아름다운 옥이로세.
襟度脫灑,	그 풍도 소탈하고 소쇄하시니,
水壺秋月,	얼음 항아리에 담긴 가을달일세.
篤志力學,	독실한 뜻으로 배움에 힘쓰시고,
窮理居敬,	이치를 궁구하고 敬을 실천하셨네.
不倚不變,	기울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어,
順受其正,	하늘의 바른 명을 어김없이 받으셨네.

한 차례 換韻하여 4언8구로 이루어진 이 찬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 주자의 「六先生畫像贊」<sup>16)</sup>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육선생화상찬」은 주자가 周敦頤·程顥·程頤·張載·邵雍·司馬光 등 6인을 찬송한 글인데, 주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문연원과 계통을 밝힌 글이다. 앞의 5인은 성리학의 이론정립에 기여한 이른바 宋朝五賢이며 마지막의 사마광은 북송 史學의 결정판인 『資治通鑑』 294권의 저자이다. 주자는 사마광의 역사학을 계승하여 『通鑑綱目』을 저술하였으니 이 6인은 주자의 학문이 있게 한 선유들이다. 구암이 이 글의 형식을 빌어 규암을 찬송한 것은 주자가 이처럼 도통선상에서 선유의 계보를 밝힌 의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 구암에게 있어 규암은 학문의 길을 열어준 스승이자 조선의 성리학을 한 단계 발전시킨 인물이었다

14) 『龜巖集』 권2, 「附錄·龜巖先生世系」(『문집총간』 33, 455쪽) : “初學於宋圭庵, 卒業於退溪之門.”

15) 『龜巖集』 권1, 「圭庵宋先生贊」(『문집총간』 33, 437쪽) : “先生氣質清明, 德器淳粹, 學問思辨, 篤以行之, 庶幾於義精仁熟之地矣. 在中廟朝, 見忤於奸臣金安老, 遷謫于泗川縣, 僑寓一吏舍, 四年不出門外. 及安老之誅, 羽儀朝著, 未及大施之初, 爲李芑等所陷, 竟遭慘禍, 痛哉痛哉!”

16) 『朱子文集』 권85(『朱子全書』, 上海古籍出版社, 2002, 제24책, 4001~3쪽) 참조.



것이다.

구암을 통해 학문의 방향을 잡은 퇴계는 퇴계를 만나 위기지학의 꽃을 피우게 된다. 30세 되던 1541년에 榮川郡守가 된 구암은 2년 뒤 1543년 겨울에 도산으로 퇴계를 찾아간다. 줄곧 서울에서 관직생활을 하던 퇴계가 이 해 10월에 휴가를 얻어 고향에 내려와 있었던 것이다. 구암은 퇴계와의 첫 만남인 이때 執贄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1570년 퇴계가 작고하였을 때의 제문에서, “문하에 들어간 햇수를 손꼽아보니 20년이 되었습니다.”<sup>17)</sup>라고 하였으니, 아마 1552년 성균관에서 함께 근무하였을 때 입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퇴계는 7월부터 11월까지 大司成으로 근무하였고, 구암은 9월에 司成이 되었다가 10월에 청주목사로 나갔으니 한 달 가량을 같이 근무하였다. 이 기간은 구암의 생애에서 퇴계와 함께 한 가장 긴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므로 구암은 특별히 이 시기를 회상하며, “전날 서울에서 모실 때에 한 동네에 셋방살이 하면서 함께 출퇴근하며 늘 가르침을 받았다.”<sup>18)</sup>고 술회하였다.

현존하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퇴계와 구암의 사제간의 정의는 각별한 바가 있다. 나이차가 그다지 나지 않는 구암에 대하여 퇴계는 ‘道義相交’<sup>19)</sup>·‘吾友’<sup>20)</sup> 등의 표현을 쓰며 벗으로 대하였고, 구암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여 밤새워 학문을 토론하였다.<sup>21)</sup> 만남의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서신을 통하여 일상의 안부와 신변잡사 및 학문토론을 자주 하였는데, 『退溪集』에는 구암에

17) 『龜巖集』권1, 「祭退溪先生文」(『문집총간』 33, 436쪽) : “屈指樞衣, 今二十年.”

18) 상동 : “昔陪京洛, 僦居一坊. 出入無違, 諄誨有常.”

19) 『龜巖集』권1, 「辭別退溪先生·附次韻」(『문집총간』 33, 426쪽) : “道義相交即會新, 何人頭白尙如新.”

20) 『退溪先生文集』권43, 「泗水李氏壽瑞詩編跋」(학민문화사 영인, 1990, 제8책, 3658쪽) : “吾友厚望之囑, 吾何敢承當哉!”

21) 『龜巖集』권1, 「呈退溪先生二首」(『문집총간』 33, 419쪽) : “客到溪亭晚, 主人倒履迎. 夜來無夢寐, 相對說義經.”

게 보낸 서신이 원집의 52편과 속집의 34편 등 총 86편이 실려 있다. 『退溪集』에 실려 있는 90여 명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은 편수인 이 서신들은 두 사람의 돈독한 관계를 방증하는 자료들이기도 하다. 이 서신들 가운데 퇴계 후손인 李晩燾가 지적한 바(22)를 따라 두 편만 골라 얹힌 사연을 따라가 보자.

1562년 봄에 경주부윤으로 재임 중이던 구암은 퇴계를 찾아가 사흘을 머무르고 도산을 떠나 예안현 객사에서 하룻밤 유숙한다. 작별한 다음날 아침 퇴계는 안부 겸 이별의 회포를 가득 담은 편지 한 통을 객사로 보낸다.

밤사이 안부는 어떠하신지요? 삼일 동안 함께 한 기쁨만으로 천 리 먼 길을 달려오신 뜻을 어찌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별 후 아득하기만 하여 마음 가눌 길 없으나 가시는 동안 보중하시기 기원하며 맑은 덕을 더욱 쌓아 병든 친구의 바람에 부응한다면 다행이겠습니다.

“님 떠난 봄산을 뒤와 함께 노닐까?

꽃 지고 새 울고 물만 흐르네.

이날에 시냇가서 님 보내오니,

님 생각 다시 나면 물가에 오리라.”(23)

처음 석간대에서 이별의 회포를 시로 읊으려 하였는데 우연히 唐人의 이 시가 생각났습니다. 오늘의 일을 다 말하고 있어 더 보낼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이 시만 적어 가시는 길에 보내오니 거두시기 바랍니다.(24)

22) 『龜巖集·別集·序』(『문집총간』 33, 506쪽) : “今之人讀是書者, 固當參互吾先集, 而惟先取石澗臺書贈唐人詩及隱侯詩, 諷詠之涵濡之, 則可以想見二先生之氣象意思, 而爲感發興起之端也.”

23) 『陶山及門諸賢錄·李楨』조의 세주에 따르면 퇴계의 6대손 李守仁(屏庵)이 이 시를 써서 석간대 서쪽 언덕 바위에 새겨 두었다고 하는데, 이 바위는 1976년 안동댐 준공으로 물에 잠겼다. 지금 도산서원 주차장 아래 선착장 부근에 있는 이 시는 안동댐 건설 당시에 원시를 탁본하여 10m 가량 위쪽에 다시 새겨 놓은 것이다.

24) 『退溪先生文集』권21, 「與李剛而」壬戌제1신(제5책, 1901쪽) : “夜來令體何如? 三日聯床之款, 豈盡千里命駕之意? 別後惘惘, 不能爲懷, 所祝行色珍衛, 益崇明德, 以副病舊之望, 幸甚. ‘君去春山誰共遊? 鳥啼花落水空流. 如今送別臨溪水, 他日相思來水頭.’ 初欲於石澗臺, 吟敘別懷, 偶思唐人此詩, 道盡今日事, 無以復加, 故只寫此詩, 送呈行軒, 想

62세의 퇴계는 아쉬움이 절절한 이 편지를 막 길 떠난 51세의 구암에게 보냈다. 이별의 애수가 독자를 몽클하게 하는 인용시는 당나라 대력연간의 시인 劉商의 「送王永」이란 작품이다. 그러나 심부름꾼이 이 편지를 가지고 예안 縣衙에 도착하였을 때 구암은 이미 떠난 뒤였다. 심부름꾼은 빈손으로 돌아온다. 퇴계가 몹시 아쉬워하고 있을 즈음에 구암은 뒤늦게 이 편지를 보고 답신을 보낸다. 원시에 차운한 시 한 수와 술 한 병을 곁들여서.

石澗臺	석간대
堪歎何年續此遊.	언제나 이 놀음을 다시 이끌까!
一春心事碧江流.	이 한 봄 그리움 푸른 물에 부치고.
澗邊送別丁寧語.	시냇가 이별할 제 간절한 말씀,
追憶令人白盡頭.	그리워 생각노니 백발만 성성. <sup>25)</sup>

아직도 이별의 회포를 가누지 못하고 있던 퇴계는 반가웠다. 자신만 반가운 것이 아니라 산 속의 꽃과 새도 함께 환희에 젖는 듯하다. 보내준 술은李文樑(1498~1581)과 함께 이별 뒤의 우울함을 달래며 마신다. 퇴계는 이 기쁨과 다시 솟아오르는 그리움으로, 그 옛날 주자의 일을 떠올린다. 외직으로만 떠돌던 주자는 65세의 노령으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정에 나아가 진강한다. 그러나 새로 등극한 寧宗을 보필할 희망에 부풀어 있던 주자는 권간 韓侂胄를 비판한 일로 인해 46일 만에 쫓겨난다. 조정을 떠나게 된 늙은 주자를 전별하기 위해 實錄院 동료들이 靈芝寺에 모였다. 이때 누군가가 시 한 수를 읊조린다.

平生少年日.	젊은 날에는.
分手易前期.	이별하면 다음 기약 쉬웠지.

垂領悉也.”

25) 『龜巖集·續集』권1(『문집총간』 33, 474쪽).

及此同衰暮,	이제 함께 늙고 보니,
非復別離時.	쉽게 이별할 때 아니로세.
勿言一尊酒,	말하지 마라, 한 잔 술
明日難重持.	내일 가져오기 어렵다고.
夢中不識路,	꿈 속에 길 잃으면,
何以慰相思?	이 그리움 어이할까?

이별의 아픔과 만년의 비애가 묻어 있는 이 시는 南朝 梁의 시인 沈約(隱侯: 441~513)이 친구 范岫(440~514)를 이별하면 쓴 시「別范安成」이다. 이 시를 듣고 감개에 겨워하던 주자는 젊은 동료 李璧(1159~1222)에게 이 시를 써서 준다. 주자와 마찬가지로 이미 노인이 된 퇴계는 이러한 사연들과 함께 주자의 감개를 빌어 다시 답서를 보냈다.<sup>26)</sup>

지금보아도 가슴 뭉클한 사연들이지만 퇴계는 학자다운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 앞 편지에서 “밝은 덕을 더욱 쌓아 병든 친구의 바람에 부응”하라고 한 것이나 뒷 편지에서 “주자가 감개에 젖은 까닭이 어찌 늙음과 이별 때문 만이겠는가?”라고 한 것들은 이별의 애상에 매몰되지 않는 노학자의 이성적 제자 사랑과 권면의 뜻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같은 해에 黃俊良(錦溪: 1517~1563)에게 보낸 서신에서 “剛而가 좋은 곳은 몹시 좋지만 식견이 투철하지 못하여 끝까지 이 학문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26) 『退溪先生文集』권21, 「答李剛而」 壬戌제2신(제5책, 1901쪽): “石礪之別, 懷惡不寐, 翌早俾候于縣則行矣. 不及而返, 益令人惘惘如失. 不意片札飛來, 披讀喜顛, 非獨老情, 山中花鳥, 亦覺歡忻. 來酒, 當與大成共破別懷之鬱. …… ‘平生少年日, 分手易前期. 及此同衰暮, 非復別離時. 勿言一尊酒, 明日難重持. 夢中不識路, 何以慰相思? 史院同僚錢別靈芝, 坐間或誦此言, 李季章見謂平生亦甚愛此, 盍書以見贈? 予謂如僕乃知此味, 季章, 未也. 胡爲亦愛此耶? 旣而思之, 解携之際, 但有一人衰暮, 便足令滿坐作惡, 乃知隱侯之言, 猶有所未盡也. 因并書以寄季章, 以爲如何也?’ 右, 晦菴先生「與李季章書」, 見『大全』書二十九卷, 想曾亦見之. 滉平日讀此, 未嘗不賞味其言而三復嘆詠, 然未若近日之身當其境, 而親遇其事, 爲尤切而有味也. 但滉所賞味者, 只在一人衰暮, 滿坐作惡等語耳. 至先生去國之際, 其所感嘆, 豈獨在於衰暮與離別耶? 此則非今日吾輩之所能窺測而言, 人還, 書此寄呈, 因以見別後老懷之所在耳.”

않다. 이미 여러 차례 쓴 소리를 하였는데 그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다.”<sup>27)</sup> 라고 한 대목과 일치한다. 구암에게 보낸 서신에 있는 완곡한 말들이 아마 퇴계 수준에서의 쓴 소리일 것이다. 구암에게 그렇게 정을 주고 금계에게는 구암을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 혹 퇴계의 이중성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제자에 대한 애뜻한 정과 근엄한 스승의 면모를 동시에 지켜가는 퇴계의 인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퇴계로부터 구암은 성리학의 조예를 쌓을 수 있었고 『중용』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퇴계집』에는 구암의 문목에 대한 답목들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중용』에 대한 답목도 몇 조 보인다. 한 대목만 소개한다.

‘無復未發之時’의 ‘無復’자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신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물이 이르기 전에 마음이 이미 흔들려서 다시는 未發의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戒懼와 謹獨은 『中庸章句』에는 나누어 두 가지 일로 삼았는데 이 편지에서 분별하여 말하지 않은 것은 동정으로 대비하여 말하자면 나뉘어 두 가지 일이 되지만 수미를 아울러 말하자면 통하여 한 가지 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sup>28)</sup>

이 답목은 辛酉年에 편년되어 있으므로 구암 50세 때의 질문에 퇴계가 답한 것이다. 구암의 문목이 없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답목의 내용을 미루어 질문을 유추할 수 있다. 아마 주자의 「答林擇之書」를 두고 문답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우선 주자 서간의 해당 부분을 보자.

27) 『退溪先生文集』권20, 「答黃仲舉」, 壬戌제3신(제5책, 1796쪽) : “剛而好處甚好, 第恐見識有未透處, 不無晚節之可憂. 已屢苦口, 未知他以爲如何耳?”  
 28) 『退溪先生文集』권21, 「答李剛而問目·朱書」(제5책, 1895쪽) : “無復未發之時, 無復字非誤也. 謂不能慎獨之人, 當事物未至之前, 其心已先自紛擾, 故無復有未發之時也. 且戒懼與謹獨, 中庸章句, 分爲兩事, 而此書無分別言之者, 以動靜對舉而言, 則分爲兩事, 以首尾統指而言, 則通爲一事.”

대개 ‘中和’ 두 글자는 모두 도의 체용인데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未發과 已發이 됩니다. 다만 신독을 하지 않으면 비록 사물이 아직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미 어지럽고 흔들려서, 다시는 미발의 때가 없게 되는(無復未發之時) 것입니다. 소위 中을 이미 이룰 수 없다면 발동함에 이르러 반드시 어그러질 것이니, 이른바 和도 또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계근공구하여 감히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은 뒤에야 중화를 이루어 大本과 達道가 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sup>29)</sup>

답목을 보면 구암은 아마 두 가지를 물었을 것이다. 첫째, ‘다시는 미발의 때가 없다(無復未發之時)’는 말에서 ‘다시는 없다(無復)’는 말이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구암은 ‘無復’ 두 자를 빼 버리고, ‘사물이 아직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미 어지럽고 흔들려서, 未發의 때에도 中을 이룰 수 없고 已發함에도 어그러져 和를 이룰 수 없다’고 이해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무리 신독을 하지 않더라도 미발의 때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퇴계의 대답은 사물과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이발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발의 중은 없다는 것이다.

이 문답의 관건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물과 접하지 않은 已發이 가능한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중이 아닌 未發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퇴계는 대체로 사물과 접하지 않은 이발이 가능하고 미발의 상태는 항상 중이라는 입장에 서있고, 구암의 견해는 사물과 접하지 않은 이발은 불가능하고 미발이라고 하여 다 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中和’에 대한 『중용장구』의 설명에서 주자는 “미발은 성이니 치우치고 기울어지는 바가 없으므로 중이라고 한다.(其未發則性也. 無所偏倚, 故謂之中.)” 하였으니 미발의 상태는 항상 중이라는 퇴계의 견해가 근거가 있고, 일반적으로 情은 사물에 반

29) 『朱子文集』 권43(제22책, 1979쪽) : “蓋中和二字, 皆道之體用, 以人言之, 則未發已發之謂. 但不能慎獨, 則雖事物未至, 固已紛綸膠擾, 無復未發之時. 既無以致夫所謂中, 而既發必乖, 又無以致夫所謂和. 惟其戒謹恐懼, 不敢須臾離, 然後中和可致, 而大本達道乃在我矣.”

응하여 發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중용』에서 發의 원인을 명언하지 않았으므로 사물과 접하지 않은 이발의 가능성 여부는 여기서 확인하기 어렵다. 간단한 문답이지만 중층의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미묘한 내용이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두고 예리하게 질문한 구암의 안목이 돋보인다. 구암의 중용학을 이해하는 쏘름一縷이 될 것이다.

둘째, 계근공구는 미발의 때, 즉 중의 시기에 해야 하는工夫이고 신독은 이발의 순간에, 화를 이루기 위한 공부인데 여기서는 계근공구로써 중화를 함께 말하고 신독을 말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질문하였을 것이다. 퇴계의 답변이 원만하지만 역시 구암의 정밀한 안목을 살필 수 있는 질문이다. 구암은 이렇게 퇴계와의 문답을 통하여 『중용』의 이해도를 높여가고 있었다.

구암이 남명과 교류를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두 사람이 晉州獄事<sup>30)</sup>로 인해 절교한 관계로 양측의 관련 자료가 모두 부실한 것이 아마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東山 鄭斗는 구암의 행장에서, “남명선생과는 도의의 사귀이 매우 두터웠다. 남명이 두류산 덕산동에 자리를 잡아 집을 지으니 선생도 또한 그 곁에 터를 잡아 세속을 벗어난 짝이 되고자 하였다. 말년에 여인의 문체가 뜻밖으로 커져 도의의 사귀을 마치지 못했다.”<sup>31)</sup> 라고 하였으니 구암은 아마 일찍부터 남명을 흠모하였던 듯하다. 『구암집』에는 남명에게 부치는 시 한 수가 실려 있다.

30) 진주옥사는 1568년에 진주인 河宗岳 후치의 음행 소문과 관련하여 일어난 옥사이다. 남명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암에게 일방적으로 절교를 통보한다. 鄭萬祚의 「宣祖初 晉州淫婦獄과 그 波紋」(『韓國學論叢』22,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0) 및 李銀植의 「구암(龜巖)과 진주옥사(晉州獄事)」(『龜巖思想 學術集』, 사천문화원, 2002) 등 참조.

31) 『龜巖集』권1, 「附錄·行狀」(『문집총간』33, 505쪽): “與南冥先生, 道契甚厚. 南冥卜築于頭流德山洞, 先生亦占地其傍, 擬結世外之侶. 暮年輔頰之騰, 遽出人意表, 交義頗不終焉.”

寄南冥

湖光似鏡元無勅, 물빛은 鏡湖를 닮았으되 조칙은 없었고,  
 山色如孤更有梅. 산색은 孤山 같거니 매화조차 있구나.  
 日曬胸中千萬卷, 가슴 속 천만 권 햇볕 쬐이니,  
 潛龍時復動鳴雷. 잠룡이 때 돌아오면 우레 울리며 날아오르리.<sup>32)</sup>

鏡湖는 중국 절강성 紹興에 있는 호수의 이름이다. 당나라 시인 賀知章(659~744)이 벼슬길에서 물러나 은거하려 하자 천자가 조칙을 내려 鏡湖 주변의 땅을 하사한 일이 있어 賀家湖라는 별명이 있다. 하지장은 풍류와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로 유명하지만 만년에 은거한 관료였을 뿐, 순수한 처사는 아니었다. 남명의 은거지가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곳이 아님을 굳이 말한 것은 하지장보다 더욱 고결한 남명의 인품과 처세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둘째 구의 고산은 杭州 西湖에 있는 산이다. 梅妻鶴子로 유명한 孤山處士林逵(967~1028)의 은거지이다. 임포는 중국 역사상 처사의 전형 같은 인물이다. 첫 구의 하지장에게 비길 수 없었던 남명의 맞수를 둘째 구에서 찾은 것이다. 셋째 구에서는 남명의 품은 경륜을 말하였고, 마지막 구에서는 그를 잠룡에 견주어 비상하기를 기대하였다.

이 시는 남명과 구암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암시하고 있다. 첫째, 이 시는 스승에게 올린 시는 아니다. 스승을 잠룡에 비유하며 후일을 기대하는 표현은 어색하기 때문이다. 퇴계와 동갑인 남명에게 집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문헌 자료들 어디에도 그들의 사체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과 일치한다. 둘째, 이 시는 두 사람이 교류를 시작한 초기의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사권 지 오래 된 사람에게 불쑥 인품과 국량을 규정하는 시를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마 소문만 듣다가 첫 만남에서 받은 강렬한 인상을 시로 표현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가 지어

32) 『龜巖集·續集』권1(『문집총간』 33, 474쪽).



진 시기가 남명과 교류를 시작하던 시기라고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 시의 시제에는 ‘南冥時在三嘉雷龍畬’라는 원주가 달려 있다. 『南冥年譜』에 따르면 김해에 살던 남명은 47세 때인 1547년에 삼가로 거처를 옮겼다. 여기서 14년을 살고 1561년에 다시 지리산 德川洞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이 주석에 의거하면 1547년부터 1561년 사이에 지은 시가 된다. 그러나 50세가 넘어 만년기에 접어든 사람을 잠룡이라고 하며 비상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아마 남명의 40대 후반, 구암이 30대 후반일 때 이 시가 지어졌을 것이고, 이때가 이들이 처음 사귄 무렵이었을 것이다.

남명과 구암이 절교하기 전까지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돈독하였다. 1558년 여름, 보름 동안 남명의 지리산 유람에 동행한 사실<sup>33)</sup>이나 연로하신 아버지를 위해 외직을 자원하고 好學하는 구암에 대해 朴實의 공부가 깊다고 한 남명의 칭찬<sup>34)</sup> 등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지은 시기를 알 수 없는 구암의 「遊頭流歌」가 혹 남명과 함께 지리산을 유람하고 난 뒤, 남명이 지은 「遊頭流錄」을 보고 그를 떠올리며 지은 작품은 아닐까?

山之高兮仁者靜, 산이 높음이어! 어진 이의 고요함이요,  
 風之來兮聖之清. 바람 불어옴이어! 맑은 성인이로세.  
 白雲飛兮碧江深, 흰 구름 날고 푸른 물 깊은데,  
 余懷之長兮誰與評. 아득한 나의 회포 뉘에게 호소하리.<sup>35)</sup>

구암은 흠모하는 선배이자 道義之交인 남명과 학문적인 교류를 하였을 터이지만 그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므로 구암의 학문 성취에 남명이 끼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33) 『南冥集』권2, 「遊頭流錄」(『문집총간』 31, 503쪽) 참조.

34) 『龜巖集·別集』권2, 「附錄·撫遺·南冥師友錄」(『문집총간』 33, 529쪽): “南冥先生曰: ‘公每以親老乞外, 嘗篤學不倦, 已於朴實頭做工夫.’”

35) 『龜巖集·續集』권1, 「遊頭流歌」(『문집총간』 33, 486쪽)

### 3. 「中庸詠十四首」분석과 그 특징

「中庸詠十四首」는 『龜巖集』 첫 머리에 실려 있다. 문집의 편집자들이 구암의 대표작으로 생각한 것이다. 후인들이 구암을 이야기하면 먼저 『중용』을 떠올리는 것도 아마 이 작품이 문집의 첫 머리에 실려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작품을 분석하면서 그 특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中庸詠十四首」는 破題의 글 한 편과 14수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詩題와 배열에서 이미 구암의 『중용』이해 경향이 나타난다. 먼저 시제를 순서에 따라 나열한 뒤 논의를 계속하자.

破題 / 1. 「中」 / 2. 「人心道心」 / 3. 「理氣」 / 4. 「性理」 / 5. 「命性道教」 / 6. 「道不可離」 / 7. 「存養」 / 8. 「慎獨」 / 9. 「中和」 / 10. 「致中和」 / 11. 「中和中庸」 / 12. 「時中」 / 13. 「道其不行」 / 14. 「誠道」

破題라는 명칭은 필자가 붙인 것이다. 별도의 제목 없이 14수의 시 전체를 개괄한 문장인 바, 구암의 『중용』 인식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1~4는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용』의 본문 밖에서 『중용』에 접근하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3과 4는 서론적이면서 동시에 『중용』 1장과 관계되기도 한다. 5~13은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중용』 1장을 중심으로 『중용』의 핵심개념을 묘사하였다. 5~10은 1장과 직접 관계된 내용이고, 11은 1장의 '中和'와 2장에 처음 보이는 '中庸'을 연결시켜 이야기하였다. 12는 2장의 '時中'을 말하였고, 13은 '도가 행하여지지 않음', 혹은 '사람들이 도를 실천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였는데, 『중용』의 3~5장에 해당한다. 마지막의 제14수는 결론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중용』 25장에 근거하여 '誠'과 '道'를 이야기하였다. 시제의 배열로 보아 「中庸詠」은 서론과 본문 및 결론이 구분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용』을 두고 작시한 작품으로

서는 전무후무한 작품이다. 이는 구암이 치밀한 안배를 통해 작시하였음을 의미한다.

「중용영」의 가장 두드러진 형식상의 특징은 『中庸大全』 細注를 응용하여 작시한 점이다.<sup>36)</sup> 구암은 작품 전체를 개괄하는 破題의 문장부터 『중용대전』의 세주를 응용하여 서술하였다.

一物을 두고 말하자면 物에는 반드시 이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고 난 뒤에 일이 있게 되니 마음이 진실하면 도는 저절로 행해진다. (就一物上說, 物必有是心. 有心後有事, 實心道自行.)

이 문장의 앞 3구가 『중용대전』 25장의 세주에 있는 주자의 말<sup>37)</sup>을 빌려온 것이다. 이 문장은 역시 25장 세주의 주자 언설<sup>38)</sup>을 형상한 14. 「誠道」와 함께 수미상응의 관계에 있다.

誠自然成就,	성은 저절로 이루나니,
不是安排作.	안배하고 조작하지 않는다네.
道却是無情,	도는 실정이 없나니,
須去行始得.	그 길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을.

구암은 『중용』 25장으로 작품을 시작하고 역시 25장으로 마무리 하였다. 25장을 『중용』의 핵심으로 본 것이다. 25장 가운데서도 첫 문장이다. 『중용』 25장은 “誠者, 自中也; 而道者, 自道也.”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 문장에 대해 주자는 『中庸章句』에서, “誠은 만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道는

36) 본론에서 소개한 과제와 14. 「誠道」 외에도 2. 「人心道心」의 후 3구, 4. 「性理」의 전 2구, 5. 「命性道教」의 전 2구 및 8. 「慎獨」의 전체가 세주를 응용한 작품들이다.

37) 『中庸大全』 25장 세주: “誠以心言, 是就一物上說. 凡物必有是心, 有是心然後有是事.”

38) 상동: “誠者是箇自然性就底道理, 不是人去作安排底物事; 道却是箇無情底道理, 却須是人自去行始得.”

사람이 마땅히 가야하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성은 心으로써 말한 것이니 本이요, 도는 理로써 말한 것이니 用이다(言誠者物之所以自成, 而道者人之所當自行也. 誠以心言, 本也; 道以理言, 用也).”라고 해설하였다. 주자의 해설에 대하여 제자<sup>39)</sup>가 물었다. “誠은 만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 뒤에 ‘성은 心으로써 말한 것’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자는 대답한다. “성은 心으로써 말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물을 두고 말한 것이다. 모든 사물은 반드시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있고 난 뒤에 이 일이 있는 것이다.” 구암은 주자의 이 대답을 빌리고 ‘實心道自行’의 구절을 덧붙여 파제한 것이다.

구암이 25장을 『중용』의 핵심으로 본 것은 ‘誠’을 『중용』의 핵심 개념으로 파악한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중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을 말하니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용』에는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많다. 왜 구암은 유독 25장에 주목하였을까? 이것이 아마 구암의 중용학을 이해하는 관건일 것이다. 구암이 25장에 주목한 이유는 25장이 성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道’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도는 본체론적인 도가 아니다. 당위로서의 도이다. 인간이면 마땅히 가야하는 삶의 바른 길이다. 그러므로 주자는 여기에서의 성을 ‘本’이라고 하고, 도를 ‘用’이라고 한 것이다. 구암에게 『중용』은 ‘費而隱’한 우주의 본체를 말해주는 책인 동시에 도덕적 실천을 깨우쳐주는 책이었으며 많은 학자들이 형이상학적인 우주의 본체에 주목하고 있을 때 구암은 도덕적 실천에 더욱 주목하였던 것이다.

파제의 글은 바로 여기에 입각하고 있다. 구암은 주자의 말을 빌려 추상적인 명제로서의 『중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物을 두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물은 모두 主宰로서의 마음이 있다. 일이 생겨나면 나의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한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주자에

39) 『朱子語類』 권64에 의하면 이 질문을 한 제자는 葉賀孫이다.

게 빌린 말이다. 구암은 여기에 한 구절을 덧붙여 주자의 말을 해설한다. 이 마음이 ‘實心’이라야 된다고. 이 실심이 바로 誠이다. 天道의 誠이 ‘誠之’를 통하여 내 마음에 자리하게 된 人道의 誠이다.<sup>40)</sup> 마음이 진실하면 도는 저절로 행해진다. 올바른 길을 저절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암은 실심으로서의 성에 바탕하여 ‘工夫’하고 실천하는 수양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구암은 파제에서 강조한 이 誠과 道를 『중용』의 결론인 제14수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작품을 끝맺어 수미가 상응하도록 하였다.

구암이 『중용』을 이처럼 수양론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퇴계와 동일한 경향이다. 퇴계의 『中庸釋義』는 工夫에 중점을 두고 『중용』을 해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용』의 해석에 있어 본체론적인 해석과 工夫, 즉 수양론적인 해석이 상충할 경우 대체로 수양론적인 해석을 따라가고 있었다.<sup>41)</sup> 구암은 퇴계의 이러한 학문 경향을 정확하게 계승한 것이다. 구암이 퇴계의 “『중용』의 전함을 깊이 얻었다”는 표현은 아마 구암의 이러한 경향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중용』을 주자에 의거하여 성리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구암의 경향은 서론부분에 해당하는 1~4의 시들에서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40) 『朱子語類』 권64, 『중용』 25장 : “誠者, 物之終始, 指實理而言; ‘君子誠之爲貴’, 指實心而言.” 주자는 ‘誠’을 구분하여 본체론적으로는 존재의 생멸이 이루어지는 ‘實理’이며 수양론적으로 ‘誠하고자(誠之)’ 할 때 ‘實心’이 된다고 한 것이다. 주자는 자주 ‘忠’을 ‘實心’이라고 하고 있는데, 수양론에서의 誠이 곧 忠(盡己)의 본질이라고 여긴 듯하다.

41) 김기현, 「조선 성리학자들의 四書 이해 및 해석에 있어 해석자의 自主性」(『동양철학연구』 35, 동양철학연구회, 2003), 77쪽. 김기현은 이 논문에서 『중용석의』의 몇 대목을 인용하여 퇴계의 『중용』 해석이 ‘工夫’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말하고, 공부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을 퇴계가 경서를 해석할 때 매우 유의하여 짚어가는 하나의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예컨대 『중용』 25장의 ‘合內外之道也’의 구절에 대한 해석을 두고 ‘내외가 합한 도’라는 해석과 ‘내외를 합한 도’라는 해석이 있는데, 전자는 ‘己와 物이 저절로 합쳐지는 도’라는 해석이고 후자는 ‘修爲하여 己와 物이 합쳐지도록 하는 도’라는 해석인 바, 퇴계가 修爲의 工夫를 강조하여 후자가 옳다고 하는 따위이다.

1. 「中」：相傳一箇字，千聖之心法。非高亦非遠，精一能允執。
2. 「人心道心」：人於天地間，形氣則猶船，道心爲之舵，波濤獲安全。
3. 「理氣」：若論以本原，理先而氣後。若論以稟賦，有氣而理具。
4. 「性理」：在心喚做性，在事喚做理。理爲人物性，性是在我理。

1의 「中」은 중용의 역사성과 일상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역사성은 주자가 『중용장구』서문에서 밝힌 道統이고, 일상성은 『중용』의 핵심교의이다. 14수의 首篇답게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핵심교의가 면면히 계승되어 왔음을 천명한 것이다. 2의 「人心道心」은 원래 『尙書·大禹謨』에 처음 보이는 개념이다. 주자는 이를 도통전수의 핵심 내용으로 파악하고 『중용장구』 서문에 언급함으로써 『중용』을 성리학적으로 이해하는 주요근거로 채택하였다. 구암은 주자의 이러한 취지에 따라 「人心道心」을 시제로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 세주의 주자 언설을 응용하여 작시하였다.<sup>42)</sup>

3의 「理氣」와 4의 「性理」는 물론 『중용』이 저술되던 당시에는 없던 개념이다. 주자가 『중용장구』에서 1장의 「天命章」을 해설하면서 “性卽理也。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氣以成形，而理亦賦焉。”이라고 한 대목을 두고 구암이 작시한 것인데, 『중용』을 성리학과 관련시킨 전형적인 시편이다. 「理氣」편의 내용은 주자의 “氣以成形，而理亦賦焉”을 ‘本原’과 ‘稟賦’로 구분하여 구체화한 것이고, 「性理」편의 “在心喚做性，在事喚做理”는 “性卽理也” 아래의 세주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편은 『중용』의 1장을 해설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암이 이 두 편의 시제를 내건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기’와 ‘성리’로써 이 작품 전체의 틀을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朱子語類』의 첫 머리에 「理氣篇」과 「性理篇」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자 성리학의 종지뿐만 아니라 형식까지도 빌려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편은 『중

42) 『中庸章句·序』세주：“形氣猶船也，道心猶舵也。船無舵，縱之行，有時入於波濤，有時入於安流，不可一定。惟有一舵以運之，則雖入波濤無害。”

용』 1장과 관련된 시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理氣'론으로 세계관을 정비한 '性理'학의 교과서로서 『중용』을 자리매김한 주자의 『중용』관을 계승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용』 1장과 관련된 시편으로는 다음의 7수가 더 있다.

5. 「命性道教」：天所賦爲命，物所受爲性。道日日常行，教禮樂刑政。
6. 「道不可離」：道豈須與離，宜常存敬畏，獨處尤加謹，庶幾無吝悔。
7. 「存養」：浩浩靈源靜，鑑空而衡平。主翁涵養地，提起喚惺惺。
8. 「慎獨」：一片止水中，點波微動時。此最緊要處，着工在審幾。
9. 「中和」：不動中有主，寂然非枯木。感通豈紛擾，纔發皆中節。
10. 「致中和」：靜約無偏倚，動精無繆差。中和本一理，位育豈異機。
11. 「中和中庸」：間中和中庸，曰性情德行。似二而實一，用功在主敬。

「命性道教」는 「天命章」의 개념들을 규정한 시편이다. '命'과 '性'은 세주에서 주자가 언급한 程伊川의 “天所賦爲命，物所受爲性”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道'는 주자 『章句』의 “日用事物之間，莫不各有當行之路，是則所謂道也.”의 취지를 축약한 것이고, '教' 역시 『장구』의 “……謂之教，若禮樂刑政之屬，是也.”를 빌려온 것이다. 시의 형식만 빌었을 뿐, 일관되게 주자의 해석을 빌어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 시편들도 마찬가지이다. 「道不可離」역시 『장구』의 '常存敬畏'를 핵심에 두고 풀어나간 것이며, 「存養」이 「道不可離」편 뒤에 놓인 것도 주자가 『중용』본문의 “道也者，不可須臾離也.” 다음에 있는 '戒慎恐懼'를 '存養'의 취지로 해설한 『장구』에 입각한 것이다. 「慎獨」은 세주에 있는 주자의 “如一片止水中，間有一點動處，此最緊要着工夫處.”를 그대로 빌려온 것이고, 「中和」도 세주의 “此心存，則寂然時皆未發之中，感通時皆中節之和；心有不存，則寂然木石而已，大本有所不立也，感通馳騫而已，達道有所不行也.”의 취지를 살려 '存心'의 중용성을 강조한 시이고, 「致中和」는 『장구』의 “是其一體一用，雖有動靜之殊，然必其體立而後，用有以行，則其實亦非有兩事也.”에 착

안하여 ‘中’과 ‘和’가 두 가지 일이 아닌 ‘一理’임을 밝힌 시이다.

11의 「中和中庸」은 『중용』 2장의 『장구』에서 주자가 游酢의 말을 인용하여, “變和言庸者, 游氏曰: ‘以性情言之, 則曰中和; 以德行之言, 則曰中庸.’ 是也. 然中庸之中, 實兼中和之義.”라고 한 말에 의거하여 작시한 것이다. 여기서 ‘중화’는 1장에 출현하는 개념이고 ‘중용’은 2장에 처음 출현하는 개념인데 양자를 비교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1장 및 2장과 모두 관련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이기」와 「성리」편도 1장과 관련된 작품으로 간주한다면 1장 관련 작품은 모두 9수가 되는 셈이다.

구암은 이 9수의 시로써 『중용』 1장의 주요 개념들을 망라하여 주자의 해석에 따라 설명하였다. 전체 14수 가운데 9수를 『중용』 33장의 제1장을 해설하는데 할애한 것이다. 이는 『중용』의 주요 개념들이 1장에 대거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자가 楊時의 견해를 빌어 1장을 『중용』 한 편의 체요라고 한 견해<sup>43)</sup>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구암은 이처럼 주자의 시각으로 시편을 구성하고 주자의 말을 빌어 작시하였으며, 주자의 뜻에 따라 『중용』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구암의 중용학이 단순히 주자의 답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시편의 구성과 시구의 내용에 그의 경향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용영」의 수미에서 드러나고 있는 수양론, 즉工夫에의 경도가 이 시편들에서도 역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道不可離」는 개념이 아니지만 굳이 시제로 삼아 “宜常存敬畏. 獨處尤加謹.”이라고 한 것이나, 『중용』의 본문에는 있지도 않은 「存養」을 시제로 삼아 “主翁涵養地, 提起喚惺惺.”이라고 한 것이나, 「慎獨」에서 “此最緊要處, 着工在審幾.”라고 한 것이 모두 구암의 ‘공부’에의 편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中和中庸」의 마지막 구절을 “用功在主敬”으로 끝냄으로써 공부의 방법인 ‘敬’을 직언하였다. 그는 주자의 해설에 따라 『중용』을 성리학적으로 파악하

43) 『中庸章句·1章』: “右第一章, 子思述所傳之意以立言. …… 楊氏所謂一篇之體要, 是也.”



되, 道體, 즉 형이상학적 본체론 보다는 수양론에 중점을 둬으로써 퇴계의 진전을 계승한 것이다. 나머지 두 편도 이 수양론의 연장선에서 공부를 통해 ‘精熟’의 경지에 도달한 인물들을 찬미하고 있다.

12. 「時中」：過者非賢智，不及只昏愚。隨時能恰好，精熟仰顏處。
13. 「道其不行」：用中嗟已遠，得善執拳拳。問強人未見，千載但塵編。

「時中」에서 “精熟仰顏處”이라고 하여 顏回와 舜을 이야기한 것이나, 「道其不行」에서 ‘得善拳拳’하던 안회와 ‘問強’하던 子路를 이야기한 것은 그들을 배워 실천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이다. 특히 「時中」에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隨時]’ ‘지나치거나 모자람[過不及]’ 없이 ‘가장 알맞은[恰好]’ 실천을 강조한 것은 공부 중심의 구암 증용학이 지향하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밝힌 것이며, 「道其不行」에서 ‘누가’ 안회처럼 ‘得善拳拳’할 것이며 子路和 같은 사람을 지금은 ‘볼 수 없다’고 탄식한 것은 그들처럼 노력하지 않는 세태에 대한 탄식이다. 이제 그들은 가고 그들의 心法만이 지나간 세월 뒤인 지금까지 『중용』에 전해 오지만 먼지만 가득 앉아 돌아보지 않은 책이 되어 버린 것이다. “千載但塵編”은 이러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科擧를 위해 『중용』의 문리를 익힐 뿐 『중용』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고 수양하던 심법이 잊혀진 즈음에 구암은 퇴계를 통해 주자로 거슬러 올라가 그 심법을 되살리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중용영」을 통해 살펴본 바, 구암증용학의 특징들을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용영」은 시제의 선택과 배열이 序·本·結의 치밀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성은 주요 개념의 해설을 위주로 하면서 본체론 보다는 工夫를 중시한 수양론에 경도되어 있다. 특히 「중용영」의 치밀한 구성은 전무후무한 것이며, 이 시가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학문체계를 드

러내기 위한 의도적 작시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중용영」은 여타 자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구암 중용학의 수준을 가늠하게 한다.

둘째, 「중용영」은 주로 주자의 『중용장구』와 『중용대전』 세주의 주자 언설을 인용·변용하여 작시하였다. 이는 구암이 철저하게 주자의 이론에 근거하여 『중용』을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용장구』보다는 『중용대전』의 세주를 응용한 시가 많은데 이는 그의 『중용』 공부에 정밀하였음을 반영한다.

셋째, 「중용영」 14수 가운데 9수가 『중용』 1장과 관련된 개념과 내용인데, 이는 구암의 『중용』관이 반영된 결과인 동시에 1장을 『중용』의 '체요'라고 간주할 주자의 견해를 존중한 것이기도 하다.

넷째, 그가 공부와 실천을 중시한 수양론에 입각하여 『중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퇴계와 동일한 경향이며, 이는 구암의 중용학이 퇴계의 계승이라는 선유들의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 4. 龜巖 中庸學의 의의

구암 중용학의 입각처인 수양론은 신유학, 즉 성리학의 핵심이다. 太極과 理氣를 통해 정비한 우주관과 세계관을 心性論으로 수렴하여 결국 수양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마 성리학의 체계일 것이다. 그러므로 爲己之學이라고 하는 것이다. 구암이 『중용』의 요체를 수양론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의 학문이 이미 성리학의 체계 속에 깊이 들어가 있음을 의미한다. 조선후기의 유학자가 성리학의 체계 속에서 유학을 이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조선중기의 학자였던 구암이 성리학에 깊이 침잠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이 시기는 조선전기에 짝을 띄우기 시작하던 성리학이 수차례의 士禍를

겪으며 침체의 국면에 접어든 시기였다. 도학이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하였던 조선, 그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서 기관장인 대사성이 성리학에 입각하여 가르치면 비웃음을 사던 그런 시기였다.<sup>44)</sup>

구암 증용학의 기반이 되었던 『증용대전』이 조선에 수입된 것은 세종 1년(1419)이며 조선에서 처음 간행된 것은 세종 10년(1428)이다.<sup>45)</sup> 구암이 살던 시대로부터 100여 년 전에 조선에서 처음 간행되었던 것이다. 이 해에 강원감사가 50권을 간행하여 올렸으니 전국으로 확산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로부터 7년이 지난 1435년에도 아직 누구나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었다.<sup>46)</sup> 그러나 서책의 인쇄와 보급이 오늘날처럼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100여 년이 지난 구암의 시대에는 대체로 보고자 하는 자는 구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리학이 비록 여말에 수입되었으나 權近(1352~1409)·鄭汝昌(1450~1504)·金宏弼(1454~1504)·趙光祖(1482~1519)·李彥迪(1491~1553)·李滉(1501~1570) 등 손꼽을 수 있는 학자들에 의하여 겨우 명맥이 유지되어 오던 상황이었고, 더구나 그간 연산군의 폐정과 사회

44) 전주 11) 참조.

45) 『증용대전』을 포함한 『四書大全』은 1415년에 명나라에서 편찬되어 1419(세종1)년에 조선에 처음 수입되었다. 1428년에 세종의 명에 따라 강원감영에서 『사서대전』 50권을 판각 인쇄하여 올린 것이 조선에서 간행된 효시이다. 김문식, 「조선시대 중국 서적의 수입과 간행-『四書五經大全』을 중심으로」(『奎章閣』 29,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6) 참조.

46) 『朝鮮王朝實錄(국역본)·世宗 17년(1435) 10월 25일(癸亥)』: “각도의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性理大全》과 《四書大全》·《五經大全》은 중국의 여러 선비들이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찬술한 글로서, 선유의 여러 학설을 채집하여 이를 절충한 것이므로 실로 理學의 연원이니, 학자들이 마땅히 먼저 강구해야 될 것이다. 태종 황제께서 내려 주신 이후로 이미 관목에 새겨 鑄字所에 두었고, 지난번에 인쇄하여 신료에게 나누어 주어 널리 퍼기를 기필했는데, 단지 지방의 각 고을 향교와 궁벽한 시골에는 일찍이 한 권의 저장도 없으므로, 향음의 뜻 있는 선비가 비록 고열하고자 하더라도 얻어 볼 길이 없으니 진실로 염려된다. ……」 하였다.”

등으로 도학의 학문적 기반 자체가 위축되어 있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중용대전』은 그 당시 지식인들 누구나가 읽고 사색하는 대중적인 책은 아니었다.

이러한 시기에 구암은 『중용대전』의 세주들을 꼼꼼히 읽고, 조선에서는 쉽게 구해보기 어렵던 『朱子語類』를 참고하여<sup>47)</sup> 『중용』의 교의를 성리학으로 파악하여 작시하였던 것이다. 구암 중용학의 일차적 의의는 여기에 있다. 성리학이 보편적인 학문이 되지 않았던 시기에 그 체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었으며, 누구나가 보는 책이 아니었던 『중용대전』과 『주자어류』를 참고하며 『중용』을 깊이 소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구암 이외에도 『중용』을 두고 작시한 예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구암처럼 치밀한 구성을 갖춘 연작시는 없다. 필자가 기 영인된 『韓國文集叢刊』을 대충 검토해 본 바로는 구암의 전인 가운데 5인, 후인 가운데 11인의 『중용』 관련 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암의 전인으로는 고려조의 李穡(1328~1396) 및 徐居正(1420~1488)·李承召(1422~1484)·周世鵬(1495~1554)·趙昱(1498~1557) 등의 시가 있었으며, 후인으로는 奇大升(1527~1572)·曹好益(1545~1609)·成汝信(1546~1632)·權驥(1569~1612)·李民宥(1570~1629)·崔錫鼎(1646~1715)·李衡祥(1653~1733)·李萬敷(1664~1732)·尹鳳九(1681~1767)·趙顯命(1690~1752)·李德懋(1741~1793) 등의 시를 발견할 수 있었다.<sup>48)</sup> 물론 이 작품들이 『중용』 관련시의 전부는

47) 『주자어류』가 조선에서 간행된 것은 구암 사후의 일이다. 『韓國書誌年表』(尹炳泰, 한국도서관협회, 1972)에 따르면, 선조 4년(1571) 11월에 校書館에 명하여 『주자어류』를 印頒케 하여 선조 8년(1575)에 頒賜하였다. 그러므로 구암 당시의 학자들은 명나라에서 수입된 책을 어렵사리 구해볼 수밖에 없었다. 구암이 『주자어류』를 숙독하였음을 명언하는 기록은 없으나, 퇴계가 구암에게 보낸 서신에서 두 차례 『어류』를 언급(『퇴계집』권21, 「答李剛而問目·朱書」)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구암이 『주자어류』를 참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8) 이밖에도 沈鏞(1685~1753)의 『樗村遺稿』卷2와 卷21에는 「讀中庸」·「尊德性」·「道問學」 등 30여 수의 시가 실려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개인의 『중용』시로는 분량이 가장 많다. 심육은 조선 양명학의 기점인 鄭齊斗(1649~1736)에게 배운 양명학자이

아닐 터이지만 『중용』 이해의 시기별 경향을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작품들을 시대순으로 간략하게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이색의 시는 2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1수는 공자와 자사의 道統이 송대 성리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였고, 후1수는 毫釐에서부터 天地까지 遍在하는 道體를 이야기하였다.<sup>49)</sup> 서거정의 시는 殿講 후의 감회를 읊은 시인데 도체와 공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sup>50)</sup> 이승소의 시는 無聲無臭한 도체를 말하였다.<sup>51)</sup> 주세붕의 시는 『중용』에 ‘君子’라는 용어가 34회 출현하는 것에 착안하여 신독의 공부를 이야기하였고,<sup>52)</sup> 조옥의 시는 『중용』을 읽고 난 뒤 자신을 반성하는 시이기에 수양에 초점을 맞춘 시라고 할 수 있다.<sup>53)</sup> 이상 5인의 시는 도통과 도체 및 공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본체론적인 도체를 이야기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공부를 말하더라도 『중용장구』나 『중용대전』에 의거하여 수양론적으로 정밀하게 파악하기 보다는 『중용』 원문의 언설에 근거하여 개괄하고 있다.

구암의 후인 가운데 퇴계의 문인인 기대승의 읊시 한 수<sup>54)</sup>와 조호익의

며 그의 유고는 한말의 양명학자 李健芳이 소장하고 있던 필사본을 등사한 유일본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바, 오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용』 관련시도 일정한 체계가 없고 동일한 시제의 작품들이 重出하여 정밀한 고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 49) 『牧隱詩藁·卷11·讀中庸有感 二首』：“身處賓師位，心存父子間。筆端明道統，門下耀儒冠。濂洛初承派，荀楊豈是班。可憐東海客，皓首欲言難。/ 粲粲毫釐內，洋洋天地間。遠途從咫尺，暗室盛衣冠。宗廟焄蒿際，朝廷肅穆班。此心終不改，始驗獨居難。”
- 50) 『四佳詩集·卷10·初八日，思政殿御前，講中庸鳶飛魚躍章』：“從容咫尺近天威，又被宣恩講聖書。豈有小臣堪顧問，須知聖德自謙虛。鳶魚道體天淵裏，位育功夫養省餘。萬古帝王傳授法，願將中字獻宸居。”
- 51) 『三灘集·卷5·讀中庸』：“從頭說出漸開張，巨細精粗摠括囊。到得無聲無臭處，天人道合混茫茫。”
- 52) 『武陵雜稿·別集·卷3·中庸』：“溪堂中夜閱中庸，慎獨收功可篤恭。三十四回君子贊，分明親見聖孫胸。”
- 53) 『龍門集·卷3·讀中庸有感』：“久知饑渴爲心害，更覺文章與道妨。却把中庸連夜讀，悔余他日失商量。”
- 54) 『高峯續集·卷1·詠致中和』：“未發爲中發是和，着功推致效偏多。性緣天賦元非倚，情在

절구 2수<sup>55)</sup>는 수양론으로 기울어져 있어 『중용』을 수양론으로 파악하는 것이 퇴계 문하의 師法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남명과 구암에게서 배운 성역신<sup>56)</sup>은 ‘人文’과 ‘大道’의 큰 틀에서 『중용』의 授受를 이야기하였는데, 남명의 기상이 엇보인다. 구암과 비슷한 시대를 산 이상 3인의 시는 퇴계와 남명의 학문적 경향을 반영한 듯하여 흥미롭지만, 구성과 내용의 정밀함은 구암과 비교할 수 없다.

이외에 권필·이민성·최석정 등<sup>57)</sup>은 “驗取吾心未發前”·“只這吾心勿助忘”·“高遠工夫自謹行” 등을 이야기하며 수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형상은 두 수의 시<sup>58)</sup>를 남기고 있는데 칠언고시 장편 한 수는 주로 『중용』의 핵심교의들을 도통연원과 관련시켜 정리 한 것이고, 칠언율시 한 수는 수양과 실천을

人修却不頗。戒懼約來心自正，隱微精去物咸訛。聖門傳授誰能會，鑽仰空懸墜白窠。”

55) 『芝山集·卷1·讀中庸鳶魚章』：“一理誠神本已同，須將敬字始兼終。天淵不外吾方寸，魚躍鳶飛自在中。／乾坤妙用未應玄，俯仰流通真眼前。待得吾心存主後，鳶魚不必在天淵。”

56) 『浮查集·卷1·觀姜秀才讀中庸』：“人文宜朗出於天，大道昭然萬古傳。聖祖賢孫相授受，一篇看了歎高堅。”

57) 『石洲集·卷7·沈秀才讀。從余讀中庸，作一絕以示』：“此道平如大路然，誰將意見比登天。爐熏一炷滿團靜，驗取吾心未發前。”

『敬亭集·卷3·讀中庸』：“潛玩中庸理氣章，何嘗求道杳冥鄉。須知上下鳶魚妙，只這吾心勿助忘。”

『明谷集·卷4·詠中庸』：“子思傳道有遺經，盡性由來在至誠。天地始於夫婦近，鬼神推及禮義明。中和極致能參贊，高遠工夫自謹行。喫緊千秋爲人意，終輸惟一與惟精。”

58) 『瓶窩集·卷2·憂道作中庸次李仲舒』：“吾聞理氣活潑潑，萬古不死充旻昊。心生爲性履爲道，繼繼承承如綴線。堯禹功湯武權，轍環堪唾夫子禱。曾門衛道別有人，詩禮家庭仁義飽。三旬九食不憂，至化惟欲輓豐鎬。時當道喪百家起，大抵揚墨皆宗老。流波已漫植根固，後死何人能奮輿。工傳精一厥中執，至矣三言於傳考。惟其蘊奧或放失，所以愚蒙味斫腦。中和極功亦循常，篤恭然後黎民保。從來祖訓父師質，命意丁寧愛寶。紹明倘無此篇帙，本要誰識平常好。狂愚賢智過不及，半途行怪任顛倒。鳶魚飛躍摠有理，大道元自夫婦造。誠明費隱一言蔽，九經三重從心討。齊莊敬肅各有要，溥博淵泉均不燥。憂深浪沒說之詳，繹互如今書更草。淵源下啓若合符，氣到鄭賢方是浩。吁嗟亡漢不亡秦，獨有程朱傳此道。

「卷3·次明谷韻寄申使君·中庸」：“嫡統相承率性經，一篇修敬在存誠。中無倚着心宜正，庸取平常理易明。親密不徒夫婦察，顯微奚但鬼神行。吾知擇善方爲軌，位育端由謹獨精。”

강조한 것이다. 이만부의 사언시 두 수<sup>59)</sup>는 실천과 수양의 공효 및 도체의 '不行不明'을 각각 이야기하고 있으며, 윤봉구의 오언시 네 수<sup>60)</sup>는 시체에 따라 도체와 공부·費隱·鬼神을 각각 말하였다. 조현명<sup>61)</sup>은 수양을 중심으로 작시하였고, 이덕무<sup>62)</sup>는 도체를 말한 뒤 주자의 踐履를 찬양하였다.

이상 제가의 시들을 종합하면, 구암을 사이에 두고 구암 이전에는 본체론으로 기울어진 경향을 보이고 있고, 구암 이후에는 수양론에 대한 언급이 많다. 본체론적인 경향은 『중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의 반영이고, 수양론에의 경도는 성리학의 궁극적 목표인 '爲己'에 바탕한 것인 바, 『중용』에 대한 성리학적 이해가 깊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암의 중용학은 본체론 중심의 『중용』 이해가 수양론 중심의 『중용』 이해로 건너가는 교량의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구암 중용학의 또 다른 의의이다. 『중용장구』와 『중용대전』에 바탕한 「중용영십사수」가 그 교량의 견실함을 보여주고 있기에 의의가 더욱 크다.

- 
- 59) 『息山集·卷2·中庸用孝經韻』: “傳心維遠, 質言卻親. 致以中和, 天地參人. 用力伊何, 明善誠身. 終也篤恭, 平天下民. / 合一無朕, 散萬可名. 誠以成之, 聲臭猶爭. 所以其道, 變化生生. 因民之鮮, 不行不明.”
- 60) 『屏溪集·卷3·屏溪述懷·其58 讀中庸』: “率修元是道, 大原本自天. 散合皆一理, 中以聖統傳. 小子曷究竟, 義理儘擴前.”  
 「其59 讀首章戒懼一節」: “戒懼敬字意, 元來通動靜. 若此不見聞, 專指靜時敬. 小子非言耄, 敢引末章證.”  
 「其60 讀費隱章」: “費隱道體用, 俱靠形而上. 流行即是費, 隱固無以狀. 小子察上下, 飛躍自宣朗.”  
 「其61 讀鬼神章」: “鬼神陰陽靈, 本屬形而下. 爲德以誠在, 須看成造化. 小子竭心思, 訓詁已說打.”
- 61) 『歸鹿集·卷3·誦中庸』: “燈前整余襟, 敬誦子思編. 聖師如可見, 恍惕仍不眠. 垂老學無成, 歎息省舊愆. 內無敦篤志, 欺心以欺天. 文辯長奸雄, 揖讓閑周旋. 是謂爲人學, 衆惡皆因緣. 嗚呼余曷歸, 窮轍臨坑淵. 慨然欲返轡, 勛哉加策鞭. 仰看白日色, 已迫西山顛.”
- 62) 『靑莊館全書·卷1·嬰處詩稿·經書·中庸』: “孔門有賢孫, 乃作諸儒宗. 慮道或不傳, 日夜憂忡忡. 孜孜體乃祖, 安詳審始終. 著書傳斯世, 天地有中庸. 不偏復不倚, 兩間塞而充. 潛融天性際, 可見聖人工. 此道何時歇, 妙理難可窮. 凡事無不有, 廣大兼從容. 世人誰踐履, 我見紫陽翁. 作序冠其篇, 開卷氣蔚蒼.”

## 5. 맺음말

스승인 퇴계로부터 가장 많은 편지를 받았던 인물, 성리학이 외면당하던 시기에 퇴계를 통하여 그 고단한 학문에 깊이 침잠하였던 인물, 누구나가 보는 책이 아니었던 『중용대전』과 『주자어류』를 참고하며 『중용』을 깊이 소화하고 있었던 인물, 그래서 본체론 중심의 『중용』이해가 수양론 중심의 이해로 건너가는 교량을 만든 인물이 바로 구암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중용』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보면 특히 좋아하였고,<sup>63)</sup> 스스로도 『중용』의 공부가 깊어 남명이 그를 두고, “이미 박실한 사람이 되는 공부를 쌓았다.”<sup>64)</sup>고 하였던 것이다. 구암에게 『중용』은 이미 학문이 아니라 실천이었던가!

63) 『磊谷年譜』: “戊午, 公受業于龜巖李先生之門, 以庸學二書爲請曰: ‘此吾曾考蘆溪公玩索不撤之書也. 文雖不敏, 心所欽慕.’ 先生再三稱歎曰: ‘蘆溪之家, 復有是孫矣.’” 이 글은 『龜巖集·別集·摭遺』에 『磊谷年譜』를 인용하여 실어둔 글이다.磊谷은 安克家(1547~1661)의 호이며 蘆溪는 安遇(1449~1527)의 호이다.

64) 전주 34) 참조.



## 【참고문헌】

- 權 鐸, 『石洲集』, 『韓國文集叢刊』 75.  
 奇大升, 『高峯集』, 『韓國文集叢刊』 40.  
 徐居正, 『四佳詩集』, 『韓國文集叢刊』 10.  
 成汝信, 『浮查集』, 『韓國文集叢刊』 56.  
 宋麟壽, 『圭菴集』, 『韓國文集叢刊』 24.  
 沈 鎭, 『樗村遺稿』, 『韓國文集叢刊』 207.  
 魚叔權, 『灌圃詩集』, 『韓國文集叢刊』 續1.  
 尹鳳九, 『屏溪集』, 『韓國文集叢刊』 203.  
 李德懋, 『靑莊館全書』, 『韓國文集叢刊』 257.  
 李萬敷, 『息山集』, 『韓國文集叢刊』 178.  
 李民宥, 『敬亭集』, 『韓國文集叢刊』 76.  
 李 穡, 『牧隱詩藁』, 『韓國文集叢刊』 3.  
 李承召, 『三灘集』, 『韓國文集叢刊』 11.  
 李 楨, 『龜巖集』, 『韓國文集叢刊』 33.  
 李衡祥, 『瓶窩集』, 『韓國文集叢刊』 164.  
 李 滉, 『退溪先生文集』, 계명한문학회 편, 학민문화사 영인, 1990.  
 曹 植, 『南冥集』, 『韓國文集叢刊』 31.  
 趙 昱, 『龍門集』, 『韓國文集叢刊』 28.  
 趙顯命, 『歸鹿集』, 『韓國文集叢刊』 212.  
 曹好益, 『芝山集』, 『韓國文集叢刊』 55.  
 周世鵬, 『武陵雜稿』, 『韓國文集叢刊』 26.  
 崔錫鼎, 『明谷集』, 『韓國文集叢刊』 153.  
 『朝鮮王朝實錄』.  
 『朱子語類』, 北京: 中華書局, 1986.  
 『中庸大全』, 내각장관, 학민문화사 영인, 1989.  
 『朱子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龜巖思想 學術集』, 사천문화원, 2002.

『龜巖年譜』, 사천문화원, 1994.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한국도서관협회, 1972.

김기현, 「조선 성리학자들의 四書 이해 및 해석에 있어 해석자의 自主性」, 『동양철학연구』 35, 동양철학연구회, 2003.

김문식, 「조선시대 중국 서적의 수입과 간행—『四書五經大全』을 중심으로」, 『奎章閣』 29,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6.

鄭萬祚, 「宣祖初 晉州淫婦獄과 그 波紋」, 『韓國學論叢』 22, 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00.

鄭羽洛, 「『中庸』이 龜巖 李楨의 文學에 미친 影響」, 『東方漢文學』 25, 2003.

## Abstract

## Gu-am Yi Jung's Academy on the Zhongyong(中庸)

Lee, Se-Dong

Gu-am Yi Jung, a scholar as well as a bureaucrat at the mid of the Joseon Dynasty, was one of Sung Confucian scholars especially influenced by Song Insoo and Yi Hwang. Being a disciple under the distinguished scholars of the day, Yeo Deukgang, Song Insoo, and Yi Hwang, he also achieved a scholastic career keeping good terms with Cho Sik in moral principles. Though the critics have acknowledged he inherited from Toegye's academy on the Zhongyong with high attainments, it's hard to look into the whole aspect because of little materials left. Fortunately, as the prose collection contains his 14 poems, Songs on the Zhongyong, his scholastic world can be partly understood. This article analyzes those poems and defines their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as below.

First, Songs on the Zhongyong is elaborately composed with the preface, body and ending in the selection of a tense and arrangement. Center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main concepts constructionally, he gave his energies to Cultivating Theory rather than the Ontology. In particular, its detailed construction is unprecedented, which implies it is an intentional creation for revealing his academic system, not an accidental writing. Therefore, Songs on the Zhongyong shows the academic standard of Gu-am's studies despite the lack of other references.

Second, Songs of the Zhongyong was written quoting and modifying the remarks of Zhu-xi in the explanatory notes of Zhongyong zhangju and Zhongyong daquan. It indicates that he thoroughly comprehended it based upon the theory of Zhu-xi. Many poems, application of detailed interpretations from Zhongyong daquan, not Zhongyong zhangju reflect that his work on the Zhongyong was done with precision.

Third, 9 out of 14 poems contain the concept and content related to the 1st chapter of the Zhongyong. This is the result of not only reflecting his academic view on the Zhongyong but respecting Zhu-xi's recognition that the 1st chapter serves as the core of the Zhongyong.

Fourth, his viewpoint grounded on Cultivating Theory emphasizing culture and practice of moral character reveals the same tendency with that of Yi Hwang. It backs up the many Confucianists' indication that his theory succeeded to Toegye.

Fifth, Gu-am's academy on the Zhongyong has a significant meaning ; his studies played a bridge role at the point of transferring from the Ontology to Cultivating Theory in comprehending the Zhongyong in the early development of Sung Confucianism.

**Key Word**

Gu-am Yi Jung, Toegye Yi Hwang, the Zhongyong, Studies on the Zhongyong, 14 poems of Songs on the Zhongyong, Sung Confucianism, Cultivating Theory

- 논문투고일 : 2008.12.23. 심사시작일 : 2009.1.15. 심사완료일 : 2009.1.30.